

북스

Books

나이 들수록 새로운 자연, 그리고 인연...

소설가 박완서 5년만의 산문집 '호미'

올해 일흔 일곱이 된 소설가 박완서는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 자락에 집을 짓고 산다.

아파트가 너무 편해서 온종일 몸 놀릴 일이 너무 없게 사육당하는 것처럼 답답했던 그녀는 땅집에 살면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것이 많았다. 거처를 옮긴 후 재미발을 가꾸는 것은 일년만에 그만뒀지만 마당에 꽃과 나무와 이물모를 풀들을 키우는 일은 그녀가 기꺼이 선택한 '행복한 노동'이다.

그녀가 '두부'에 이어 5년만에 펴낸 산문집 '호미'는 자연과 더불어 살며 느꼈던 감정들과 '거저 먹은 나이'는 아니지만 자꾸 읊조려들게 되는 '나이들'에 대해, 또 그녀와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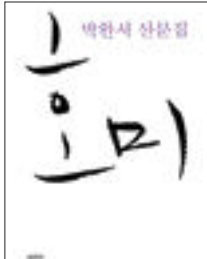
'내 나이에 6자가 들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촌철살인의 언어를 꿈꿨지만 요즘은 나도 모르게 어질고 따뜻하고 위안이 되는 글을 소망하게 되었다'는 그녀의 고백처럼 책에 실린 50여편의 글들은 생을 관조하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깊은 울림을 준다.

표제작 '호미'는 휴즈무르기를 좋아하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도구인 호미에 대해 쓴 글이다. 외국에 나간 친지들이 사다준 유명 원예용품들을 제치고 그녀의 사랑을 독차지 하는 호미는 기능도 뛰어나지만 꼭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흙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에서 행복감을 준다.

주로 땅위에 었드려 기어다니면서 일을 하며 흙과 하나 되는 그녀는 이제 유포트전의 식물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새집을 지으며 배어버려다 친구가 된 복련 덕에 꽃이나 흙에게 말을 시키는 버릇도 생겼다고 말한다.

책 속에는 그녀와 아름다운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다. '종교도 없고, 학교도 다니지 않았지만 인간을 아끼는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셨던' 시어머니,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딸아이의 교육에 관심을 쏟았던 어머니 등 가족들에 얽힌 이야기와 역사학자 이외화, 소설가 이문구 등에 대한 추억 등이 감동을 준다.

그녀는 또 제물의 진액을 모두 내어주는 고로쇠 나무를 보며 '마지막 허영'으로 남아있는 우아하게 늙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일에 지쳤을 때 훌쩍 떠나는 네발의 트레킹에서 만난 현지 아이들을 보며 새로운 희망을 꿈꾸기도 한다.



그밖에 이제는 사라진 종로서적 앞에서 추억어린 장소나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늘 거기 있었거니 믿은 무관심 때문에 놓쳐 버리는 게 아닌가 아쉬워하기도 한다.

종교 시절에는 신문사로 잡지사로 원고 심부름을 다녔고, 이후에는 그녀의 많은 나들이에 동행했던 큰 딸아이에게 "엄마가 더 늙어 살짝 노망이 든 후에도 알량한 명예욕을 버리지 못하고 괴발개발 되지 않은 글을 쓰고 싶어 한다면 건 사회적 노망일테니 그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 네가 모질게 제재해주기를 바란다. 엄마가 말년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 마지막 글 '딸에게 보내는 편지'는 읽는 사람을 통쾌하게 만든다.

출판사는 자연과 함께하는 그녀처럼 독자들에게도 행복을 전하기 위해 꽃씨 한봉지를 선물로 준비했다. (열림원·9천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알렉산더의 연인=중국 소설가 산사의 새 장편소설. 세계사에 나타난 최고의 정복자 알렉산더가 침략지에서 만난 아마존 여전사 알레스트리아와 사랑을 키워나간다.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 중 결혼한 것으로 알려지는 록산이 주인공의 모티프가 됐다. <현대문학·1만원>

▲전쟁의 기술=베스트셀러 '유혹의 기술'의 저자 로버트 그린 이 쓴 책으로 승리하는 비즈니스와 인생을 위한 33가지 전략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손자, 알프레드헤치콕, 마거릿 대처 등 동서양 인물들의 삶을 분석해 다양한 전략을 제시한다. (이마고·2만5천원)



▲리스본 정탈전=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포르투갈 소설가 주제 사마리구의 1989년 작. 소설은 포르투갈의 설립 과정서 출발한다. 12세기 이베리아 반도의 서쪽 포르투갈레의 통치자 아폰소 엔리크시가 영국 십자군의 도움으로 리스본을 점령한다. <해냄·1만3천원>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소설가 함정임이 '미치도록'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 적은 산문집이다. 여행 중 마주치는 이름 모를 꽃 하나에서 여행의 의미를 찾아내는 저자는 여행에 대해 "떠나서 느끼고, 돌아와서 그리워하라"고 말한다. (푸르메·9천800원)

▲스무 살이 되는 당시 여자에게=여자에게 스무살은 '성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장영희(수필가·서강대 교수), 김점선(화가), 이은미(가수), 김현진(시나리오 작가), 강지영(기자), 오지혜(배우) 등 선배 여성 9명이 스무살의 문턱에 선 '꽃피'들에게 인생의 조언을 한다. <한겨레출판·9천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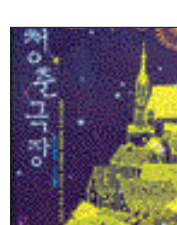


▲우리와 그들, 무리짓기에 대한 착각=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 불리는 것은 혼자서는 살 수 없음을 뜻한다. 하지만 더불어 사는 것을 넘어 편을 가른다면 문제가 좀 다르다. 저자는 '우리'나 '그들'과 같은 울타리는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에코리브르·2만원>



▲누군가를 만났어=3명의 신인작가들이 쓴 단편 5개씩 모두 15편이 실려있는 새로운 형식의 소설집. 배명훈, 김보영, 박예진 등 30대 초반의 패기 넘치는 작가들이 우주와 지구, 상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상상력의 한계를 실험한다. <행복한책읽기·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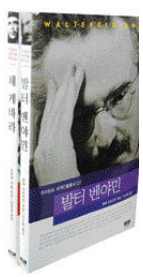
▲한국문학을 인터뷰하다=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의 기자로 활동 중인 홍성식씨가 내로라하는 한국 작가 27명과 진행했던 인터뷰를 책으로 엮었다. 저자는 책에 등장하는 황석영, 신경림, 조정래, 송기숙, 공선옥, 성석제, 김벌이 등 작가들과 함께 했던 시절이 가장 좋아하고 싶은 때라고 말한다. <당그레·1만원>



▲청춘극장=MBC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의 주막 밤 인기코너 '청춘극장 1막1장' 책으로 출간됐다. 작가 정현주씨가 쓴 이 코너에는 이민우, 홍경민, 강타 등 수많은 스타들이 다녀가며 청춘 남녀의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를 들려줬다. <현문미디어·9천500원>

주어캠프 '인물총서' 시리즈 1·2권 출간

문학, 음악, 사상, 철학, 모험, 판타지 등 각 분야에서 세계사를 이끈 인물들을 엄선했다. 발행하는 독일의 유명 출판사 주어캠프(Suhrkamp)의 '세계인물총서' 시리즈가 한국에 번역·출간됐다.



시리즈는 현대적 구성으로 기존 평전과의 차별을 시도했다. 책의 페이지수가 적은 만큼 인물들의 생애와 작품, 영향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시리즈는 '2005년 가장 아름다운 독일어 책'상을 받기도 했다.

첫 출간된 두 권의 주인공은 발터 벤야민과 체 게바라. 1권을 쓴 몸메 브로더너 팔레르모대학 교수는 20세기 문학과 예술 등을 가로지르며 활발하게 집필활동을 했던 벤야민이 21세기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다. 2권에서는 저항세대의 우상이자 신화로 불리는 체 게바라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인물과사상사·각 권 7천800원>

화교와 인교, 그들은 누구인가

〈華僑〉 〈印僑〉

중국과 인도가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5년 GDP(국내총생산)가 2조2천750억 달러로 2조2천억 달러에 머문 영국을 제치고 세계 4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인도는 자국 증시인 섀넥스 지수가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지난해 1월 사상 최초로 1만선을 돌파 하는 등 세계 경제의 '신데렐라'로 급부상하고 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두 나라의 영문글자를 조합한 친디아(chindia)라는 용어는 이제 세계경제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됐다.

광주일보 기자 출신인 박형기(머니투데이 국제부장)씨가 쓴 '친디아의 비밀병기 화교& 인교'는 중국·인도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화교(華僑)와 인교

친디아의 비밀병기 화교& 인교 박형기 지음

(印僑)의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중국 경제에 종사하는 화교와 인도를 세계적인 IT아웃소싱 기지로 자리매김한 인교가 일차원적인 지연, 혈연, 업연(業緣)의 공동체라는 점을 주목한다. 화교는 기본적으로 출신지 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한 뒤 이 네트워크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특히 한국의 '계'와 비슷한 현금 동용시



스템이 발달돼 있어 사업자금을 동향자 집단에서 손쉽게 조달하는 것이 강점이다. 이같은 조직과 시스템이 거대자본을 통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됐다. 인교도 화교와 비슷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지만 '영어로 무장한 강점 때문에 중국을 압도할 차세대 카드로 꼽힌다.

인도가 국가적으로 조기 영어교육을 실시한 덕분에 실리곤 벨리에서 일하는 세 명 중 한 명이 인도계다. 이들이 고국인 인도에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을 끌어들이는 첨병 역할을 했다.

저자는 인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인도 최대 신문사인 힌두스탄타임스의 논설주관을 지낸 나레인 로이 박사의 글을 번역해서 실고 있다.

'친디아'라는 책을 출간함으로써 국내에 처음으로 친디아 개념을 소개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한국이 화교·인교 네트워크의 핵심부에 침투하지 않을 경우 세계 경제의 메이저 플레이어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교보문고·9천800원> /윤영기기자 zenfoot@kwangju.co.kr

2007년 중국 명문대학 11회 입학반 모집

2007년 9월 중국대학 1,2,3학년 입학 및 반입

2008년 5월 본고사 대비

2007년 9월 총합대 입학

중국명문대학 입학설명회

타오어어 中國語學院

문의전화: 011-233-9582

토익 만점 기록 11회 대행진!

목표점수까지 무한반복수강!

880점 만점반 / 800점 목표반 / 660점 목표반 / 초등중학생반

동아외국어학원

예술의 거리 → 중앙초등학교 후문 사거리 입구 ☎(082)222-6253